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선정

남원시, 8천여만원 국비 확보... 서남대와 지역 기업체 현장 중심 취업교육

남원시가 2017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8천여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서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참여한 사업은 "지역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 유도 사업"으로 지역기업체가 원하는 전문교육을 통해 인력 양성과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음료(주), 영우농동식품(주) 등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들의 증설투자로 대규모

인력 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구인난 해소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구직자에게는 지역 기업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내 고향 기업체로의 취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지역 대표기업들과 취업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별 현장 교육과 고용 연계로 기업체의 신규 인력 재교육 부담을 덜어주게 되며, 3월말까지 교육생을 모집한 후 5월부터는 서남대학교와 지역 기업체

를 오가는 현장 중심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취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2015년부터 연속 선정되어 국비 3억 2천여만원을 확보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BSC성과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

구림면·동계면·순창읍 등 3개면 우수읍면 선정

순창군이 2016년 BSC(Balanced Scorecard Scorecard:균형성과 평가제도)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통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www.kais.go.kr)에 공개했다.

군은 지난해부터 군의 생산성과 성과향상을 위하여 조직의 성과를 고객·업무·재정·학습성장 등 4개 관

점에서 평가하는 BSC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한 결과, 우수부서로 장류사업소, 농촌개발과, 건강장수사업소, 보건사업과, 체육공원사업소 등 5개부서를, 우수읍면으로 구림면, 동계면, 순창읍 등 3개면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평가를 위하여 지난해 부

서별로 159개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관리해 왔으며, 도전적인 목표선정을 위한 전문가 지표평가와 목표 달성도를 종합평가하여 최종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올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방법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내부직원들 뿐 아니라 군민들이 공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진행 노후 전기 시설 정비 등

고창군(군수 박우정) 전통시장이 청결하고 편안한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군은 전통시장이 주민친화형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올해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주차장 조경보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상하 전통시장, 해리전통시장에 빗물 배수

관과 노후 전기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고 판매대를 점포별로 맞춤 제작해 화하는 등 구시포, 동호해수욕장과 상하면과 해리면을 찾는 고객과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창전통시장 제2주차장(서문 방향)과 무장전통시장 주차장에 나무를

식재하고 주차선을 정비하는 등 푸르고 청정한 주차장을 만들어 편의를 돕고 화단을 조성하고 함께 정자(파고라)를 설치하는 등 무장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과 연계,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전통시장이 사랑방, 놀이터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덕과면, 독립만세운동 기념식

제98주년 3.1일을 맞이하여 남원시 덕과면에서는 독립만세운동 기념식 및 재현 행사가 3월 1일 오전 10시에 덕과면 사율리 동해골 3·1절 기념탑 광장에서 덕과면 발전협의회(회장 김주곤) 주관으로 이환주 남원시장과 이용호 국회의원, 이석보 남원시의회의장 등 기관단체장, 학생, 주민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념식에는 당시 동해골 만세운동을

주동한 고 이석기 덕과면장의 손자 이종삼(한국독립동지회전북지부장) 씨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이환주 남원시장의 기념사에 이어 남원시립합창단의 3.1절 노래 제창과 김주곤 발전협의회회장의 대한독립만세 3창으로 거행되었다.

이어서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에는 덕과면 현지 주민 100여명이 당시의 복장과 각색으로 긴박하게 진행되는

동해골 만세운동을 지역 주민들이 연출함으로써 이 고장 선열들의 충절과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자발적이고 자랑스런 자긍심이 충만하는 기세로 실감나게 진행되었다. 이곳 동해골에서는 1919년 4월 3일 일제에 대한 자주독립을 위해 식목일을 가감하여 당시 이석기 덕과면장이 주동이 되어 남원전역에 격문을 발송하고 주민 1,000여명과 함께 만세운동을 일으켜 만세운동이 남원전역으로 확산되는 시발점이 됐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지역 내 초등학교 대상...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고창군체육회가 미래 한국 축구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을 위해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유소년 축구교실은 고창군(군수 박우정) 후원으로 지역 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고창읍 월암리에 소재한 생활축구경기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축구교실은 봄이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운동량과 새로운 경험의 기회가 제공되는 체험의 장이 되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축구교실을 통해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바른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축구주역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유소년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소년축구교실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운영에 대한 문의는 고창군체육회(070-4170-9763)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농기센터, 1지도사 1특화작목 전문인 양성

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1지도사 1 특화작목 전문인 양성을 선언하고 직원회의부터 현장형·컨설팅 형으로 전환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선 매월 진행되는 직원회의를 기존 전달식 회의에서 탈피해 올해부터 농업 현장을 찾아 직원별 연구과제 발표, 최신 기술전수, 현장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격 전환했다. 기존 탁상 회의를 벗어나 농가에 대한 기술 지도도 실시하고 전문 지도사의 과제 발표로 후배 지도사의 능력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의 직원들이 참여해 금과면의 한 딸기농장에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딸기 전문지도사 한재우 상담소장이 농가에게 딸기재배 포장에서 병해충방제, 생육기술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농가에게 큰 도움을 줬다. 또 후배 지도사들에게는 기술을 전수하는 기회도 됐다.

군은 앞으로 농촌진흥청과 현장 전문가를 초청해 농업지도사들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1지도사 1연구과제를 선정해 1년동안 연구한 뒤 발표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한강도에서 농촌지도사들의 핵심 능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관련해서 최근 27일 회의는 30여명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남원시, 1박2일 체험관광 시범 운영

남원시가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광산업의 발굴과 활성을 찾기 위해 마이스(MICE)산업을 접목한 1박2일 체험관광프로그램을 최근 모객업체 관계자와 일반 참가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에 실시한 1박2일 체험관광프로그램은 지역행복생활권인 남원·순창·임실지역의 명소를 둘러보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임실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체험을, 순창에서는 강천산 트레킹을, 남원에서는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관람 및 지리산행사골 트레킹과 허브체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또한 1박2일 체험관광프로그램 상품 설명회와 트론회가 실시되어 남원 관광산업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남원시는 전망하고 있다.

고창경찰, 담당경찰관 일제정비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에서는 이번 상반기 인사발령으로 직원이 교체됨에 따라 관내 마을별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마을 담당경찰관'을 일제정비 함으로써 책임치안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우리마을 담당경찰관'은 각 마을별로 담당경찰관을 지정해 경찰관이 수시로 담당 마을에 나가 방범진단 및 농산물 절도,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예방 홍보와 함께 주민의견 수렴 및 민원상담 등 주민중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안 활동이다.

흥덕파출소장은 "농촌지역 특성상 노령층이 많아 절도 및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한 면이 많지만 책임치안 활동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경찰, 아동안전지킴이 간담회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 남계파출소(소장 이동권)에서는 3월부터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아동안전지킴이와 파출소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실시 아동·학생보호 활동에 대한 설명 및 근무요령 등에 대한 안내의 시간을 가졌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 관련 범죄예방과 청소년 비행선도를 위해 학교주변에 배치되어 순찰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남계파출소에서는 4명의 어르신이 활동을 한다.

이동권 파출소장은 "아동안전지킴이와 경찰의 민경협력치안을 구축하여 아동·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경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